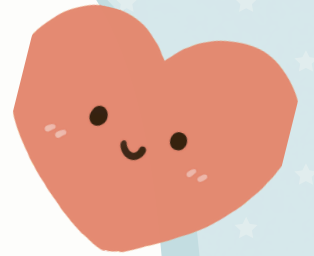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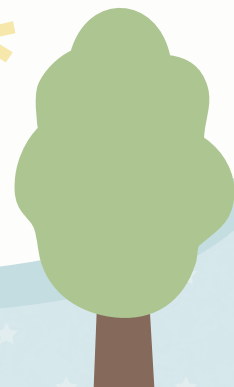
Q.



자녀가 그림책에 집중을 못하고
탄 말로 관심을 돌리려고 할 때
어떻게 그림책에 더 몰입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answe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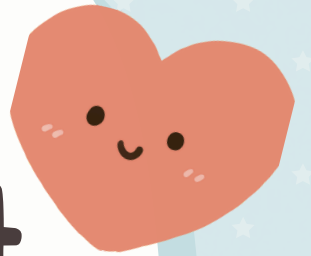




영유아의 집중이 짧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영유아의 집중 시간은 원래 짧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집중만으로도 영유아는 이미
책과 충분히 만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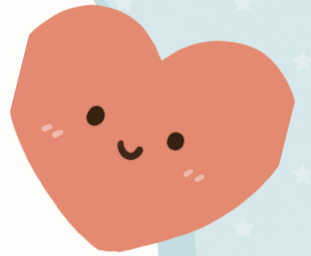


끝까지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영유아에게 중요한 것은
책을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머문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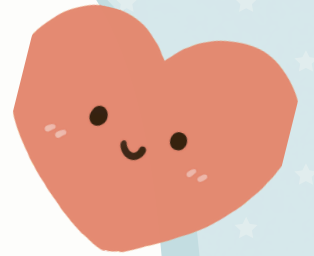
중간에 멈추어도
그 시간은 의미를 가집니다.



뽕뽕처럼 보이는 행동도
'집중하지 않았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책과 연결된 자신의 생각을 꺼내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영유아에게는 듣기, 말하기, 움직이기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집중시키려 애쓸수록,
영유아는 책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어야 한다는 부담보다
영유아의 반응을 그대로 허용해 주는
태도가 집중을 키웁니다.



흥미가 있는 책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다양성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스스로 고른 경험입니다.
같은 책, 아는 이야기에서도
집중은 다시 시작됩니다.



집중력은 '훈련'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함께 읽다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경험
속에서 영유아는 책이 부담이 아닌
안전한 공간임을 배웁니다.